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수— 안수길과 그의 문학세계

中國吉林省延吉市公園路 105 號

延邊大學 師範學院 朝文系

金虎雄 教授

위만주국시기(1932.3~1945.8)에 중국 동북의 룡정과 신경을 중심으로 염상섭, 안수길, 박팔양, 김조규 등 20 여명의 문인들이 《문화부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 지역을 여행했거나 방랑한 문인들까지 계산하면 무려 130 여명에 이른다. 이들 <<문화부대>>는 김창걸, 이육 등 이 지역의 향토작가들을 육성했으며 1930년대 초반의 <<북향>>시 시절부터 안수길의 장편 <<북향보>> 연재가 끝나는 1945년까지 민족문학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재만조선인문학은 한국현대문학의 대륙으로의 확장이라는데, 특히 암흑기(1940.8~1945.8)의 공백을 메웠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방 후 중국조선족문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도 의미를 가진다.

이 14년간의 재만조선인문학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상을 보인 문인은 남석 안수길이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만주체험과 조선인 개척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북향>>시절부터 <<북향보>>까지 시종일관 조선인 개척민들의 생활과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활과 정서를 대변하고 그들의 진로를 모색해 왔다.

특히 안수길의 소설집 <북원>>(1943)에 실린 소설들을 보면 대체로 세개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새벽>>, <<벼>>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주초기 조선인 개척민들의 수난사, 개척사, 정착사와 그들의 강한 생존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각촌>>, <<바람>> 등에 와서는 특이한 만주의 자연풍토와 조선인 개척민의 특이한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토성>>, <<목축기>>에 와서는 정착과 안주를 위한 조선인이주민들의 순응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위만주국의 현실과 단절된 공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안수길의 소설은 독특한 예술풍격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이주초기 개척민들의 수난사와 개척사를 현장감이 넘치게, 참담한 색조로 보여주었으며 첨예한 갈등에 기초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극적인 수법으로 긴장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또한 단편 <<원각촌>>에서는 개척이민의 특수한 유형-역사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조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대륙적인 기질, 정서와 미를 보여주었다.

안수길과 그의 문학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부대>> 계열에 속하는 문인들 중 이 지역에 가장 오래 동안 살았고 <<북향>>지 시절부터 <<만선일보>> 시절까지 시종 재만조선인문단의 중심 멤버로 활약했다. ② 작품의 양과 질에 있어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며 <<북원>>이라는 개인소설집을 펴낸 유일무이한 문인이다. ③ 만주조선인의 개척사, 정착사 및 그들의 운명과 진로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형상화한 작가로서, 한국 현대문학의 대륙적인 기질, 정서와 미를 창출한 작가로서 그의 소설은 재만조선인문학의 기본 테마와 직결되어 있으며 재만조선인문학의 주요한 흐름과 단계를 대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수이다. ④ 1959년 대하소설 <<북간도>>를 발표하지만 그의 전반 문학은 중국의 동북 대륙과 숙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대륙문학과 한반도문학의 혈연적인 관계 및 그 양자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약속해준다.

◇ 2002. 7.18~20 제 1 회 세계코리아학대회 발표논문 ◇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수— 안수길과 그의 소설세계

김 호 응

재만조선인문학은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장르에 걸쳐, 다양한 사상예술적 경향을 지니고 비교적 폭넓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조선인 개척민의 개척사와 정착사, 그들의 운명과 진로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형상화한 작가는 안수길이다. 우리는 그의 소설문학을 통해 이 시기 조선인문학의 기본적인 흐름과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볼수 있다. 말하자면 안수길은 적어도 1930년대 중반 동인지 <<북향>>시절부터 1945년 그의 장편소설 <<북향보>>를 발표하기까지 이 땅의 조선인 개척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개척사와 정착사에 주안점을 두고 소설창작을 통해 이른바 <<북향>>건설을 꾀하였는바 그는 재만조선인문학의 계보를 대변하고 그 주요한 주제의식을 집요하게 추구한 작가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있다.

이 글에서는 주로 작가 안수길의 인생을 되돌아봄과 동시에 위만주국시기에 창작한 그의 중, 단편소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의 소설가 류현중(劉賢鍾)은 안수길을 두고 다음과 같이 추억하고 있다.

...1958년, 나는 작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게 되었다. 당시 교수로서는 김 동리, 서 정주, 박 목월, 안 수길 선생 등 쟁쟁한 문단의 중진들이 계셨다.

안 수길 선생은 작품처럼 간간하고 깔끔하고 작은 키에 여윈 몸이셨다. 안경을 쓴 채 올백한 머리를 하여 아주 단정한 분이였다. 강의시간에는 약간 고개를

들고 시선은 교실 한쪽 귀퉁이에 고정시켜 두고 한쪽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버릇이 있었다. 열강하실 때면 그 다리의 굴신운동은 더 민첩해지고 여러 번 굽혔다가 폈다가 하곤 하였다. 서울에 수십 년 살았다지만 함경도 함흥지방의 사투리 억양이 아직도 남아 있었는데 한쪽 다리를 들었다 놓았다 할 때의 선생 모습은 마치 날아가기 전의 한 마리 고고한 학을 연상케 했다.

학생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천장 귀퉁이에 시선을 매다는 이유는 바로 선생이 여학교 선생을 오래 하시어 생겨난 버릇이라고 말씀하셨다.

아름다운 선생은 한 마리 학이었다. 절개가 있고 불의와 타협할 줄 모르며 청렴 결백하게 사시다가 떠나신 분이다.

작가 안수길은 1911년 11월 3일 함경남도 함흥시 서호리 190번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호는 남석(南石)이다. 안수길은 간도 룡정 광명학교 교감을 지낸바 있는 안용호(安鎔浩)의 장남이다. 안용호는 1921년 안해와 둘째 아들만 데리고 장사군으로 간도에 살고있는 삼촌을 따라 이민을 왔다. 안수길은 할머니와 함께 고향에 눌러 살면서 소학교를 다니다가 13살 되던 해 고향을 떠나 부친이 살고있는 룡정으로 온다. 1926년 안수길은 간도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함흥으로 돌아가 그 해 3월에 함흥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한다. 그러나 함흥고보 2학년 때 동맹휴학사건이 일어나고 안수길은 그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교를 자퇴하게 된다. 1928년 3월 안수길은 서울에 올라가 경신학교 3학년에 편입된다.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고 그 여파로 경신학교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난다. 안수길은 또 그번 만세운동의 선두에 선 까닭에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15일간의 구류생활을 치르게 되고 끝끝내 이 사건으로 퇴학당하게 된다. 1930년 안수길은 일본으로 건너가 그해 3월 교토(京都)에 있는 료요중학교(兩洋中學校)에 들어간다. 안수길은 그 이듬해 졸업하고 도쿄에 옮겨가 와세다대학 고등사범부 영어과에 입학한다. 하지만 한해도 채우지 못하고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다.

1932년 간도에 돌아온 안수길은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문학공부에 전념한다. 1935년 그의 단편

<<적십자병원원장>>과 콩트 <<붉은 목도리>>가 <<조선문단>>지의 현상공모에 동시에 당선된다. 그해 그는 소학교시절의 동창인 김현숙(金現淑)과 결혼한다.

1935년 안수길은 그의 집에 기숙을 하고있던 광명중학교 영어교사 리주복(李周福)과 함께 해란강기슭을 산책하다가 뜻을 모아 <<북향회>>라는 문학동인회를 만들기로 했다. 간도는 조선인들의 제 2의 고향이므로 이 땅에 우리 문학을 심자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 뒤 안수길이 천주교마을인 팔도구 등지에 가서 소학교 교사로 약 1년반가량 있는 동안 리주복은 룡정에서 <<북향회>>를 발족시켰다. 그 구성원들은 룡정 지역의 남녀 중등학교의 교사들과 병원의 의사들이었다. 안수길은 <<북향>>지에 소설 <<장>>, <<함지쟁이영감>>과 기타 번역작품들을 발표한다.

1936년부터 안수길은 룡정에서 발간되던 <<간도일보>>의 기자로 근무한다. 1937년 룡정의 <<간도일보>>와 신경의 <<만몽일보>>가 병합되어 <<만선일보>>로 발족하자 안수길은 신경으로 가서 근무한다. 당시 럽상섭(廉想涉), 신영철(申瑩澈), 송지영(宋志英) 등이 동료로 같이 일했다. 1941년 봄 안수길은 룡정에 특파원으로 내려갔다가 태평양전쟁 말기에 본사로 돌아간다.

아무튼 안수길은 8년간 <<만선일보>>의 기자로 일했고 이 신문의 룡정특파원으로 있었던 1941년봄부터 1945년 6월까지 문학창작에 몰두해 자기의 독자적인 문학세계를 확립했다. 안수길은 <<만선일보>>에 <<새벽>>, <<벼>>, <<차중에서>>, <<부엌녀>>, <<4호실>>, <<한여름밤>>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단편 <<목축기>>를 조선 국내의 문학지 <<춘추>>에, 단편 <<원각촌>>을 <<국민문학>>에 발표하고 1943년 단편 <<바람>>을 <<매일사진순보>>에 발표했으며 1944년 4월 첫번째 소설집 <<북원>>을 펴내기에 이른다. 1944년부터 해방되던 해 4월까지는 <<만선일보>>에 장편소설 <<북향보>>를 150여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한다.

1945년 6월 그는 건강이 나빠져 <<만선일보>>사를 사직하고 조선으로 돌아간다.

해방후 안수길의 인생 편력을 잠깐 살펴보자. 조선에 돌아간 안수길은 흥남시 후농리 과수원에서 료양하다가 1946년 가족과 함께 월남하여 <<경향신문>>에 입사해 문화부 차장(1946), 조사부장(1949)을 역임한다. 1950년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안수길은 대구로 피난하며 1951년 <<1.4>>후퇴시에는 부산으로 피난을 간다. 1951년 그는 해군 정훈감실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1952년 피난지 부산에 있는 룡산고등학교 교사로 취직한다. 1954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과장으로 취임하고 두 번째 소설집 <<제 3 인간형>>을 간행한다. 1955년 소설집 <<제 3 인간형>>으로 제 2회 아시아자유문학상을 수상하며 세 번째 소설집 <<초련필담(初戀筆談)>> 등을 발표한다. 1959년 리화여자대학교 국문과에서 소설창작강의를 맡으며 1960년 국제 PEN 클럽 한국본부 중앙위원으로 피선된다. 1963년 네 번째 소설집 <<풍차>>를, 1965년 다섯 번째 소설집 <<벼>>를 정음사에서 간행한다. 1968년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하며 1977년 4월 18일 지병으로 서거한다. 해방후 많은 소설들을 발표했지만 해방후 안수길의 대표작은 역시 1959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대하소설 <<북간도>>이다.

2

안수길은 소년시절부터 문학을 사랑했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량대 신문의 학예면에서 활애하는 학생문예란에 투고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새장에 새장에/ 노랑새
파랑새/ 붉은새 흰새/가득 찻어요.// 노랑새 놀놀/ 노래 하면은/
파랑새 팔팔/ 날고 있어요.// 붉은새 붉붉/ 골을 내면은/ 흰새가
펼펼/ 웃기만 해요.>> -안수길이 18세 때 쓴 재미나는 동시다.

안수길의 이름이 조선 국내 문단에 처음 나타난것은 1935년 2월 리학인이 복간한 <<조선문단>>(5권, 1호)에서이다.

여기서는 현상모집 고선 결과를 사고로 내고 있는데 안수길의 단편소설 <<적십자병원 원장>>과 콩트 <<붉은 목도리>>가 당선작으로 되어 있다. <<적십자병원 원장>>은 당선작이면서도 검열관계로 발표되지 못했다. 이 소설은 <<독립군의 적십자병원 원장이었던 한 의사가 간도지방의 촌락도시에서 개업하고있었으나 만주국(일본의 괴뢰정권)이 설립된 직후 그곳으로 진주한 일본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거짓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가 역시 거기를 습격한 공산유격대에 납치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다루고있다.

그리고 콩트 <<붉은 목도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성욕 억제에는 자신을 가지고있다>>고 자부하는 한 사나이는 안해와 리혼을 하려고 그녀와 한자리에 자면서도 부부의 관계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목욕집에서 <<희미한 전등불 밑에 눈에 비친인 품만한 곡선>>- 붉은 목도리를 쓴 여인을 보는 순간 그만 정욕이 발동해 그녀의 뒤를 밟게 되고 마침내 그녀를 범하고 만다. 하지만 붉은 목도리를 쓴 여인이 바로 그의 안해일줄이야 누가 알았으랴. 이 작품의 결말은 우리에게 깨고소한 웃음을 선물한다. <<완강히 반항하리라 생각했던 여인이 비교적 온순히 그의 하는 대로 매겨 둠으로 그는 그의 수욕이 시키는 대로 그 여인을 희롱하였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멀리서 비치어 오는 예배당의 외등의 희미한 빛에 비치어 그 여인의 낮을 보았을 때 그는 악 소리를 치고 도망하였던 것이다. 소박택이 그의 처는 친정에 쫓겨가 있던 중 오늘 저녁 동생의 목도리를 쓰고 마슬 갔다 오던 길에 꿈에도 참말 꿈에도 생각 안 했던 봉변을 당했던 것이다.>>

이 무렵 안수길은 조선 국내 문단지에 작품을 투고함과 동시에 룡정의 동인지 <<북향>> 제 3 호(1936. 3. 27)에서부터 소설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단편 <<장>>이다. 단편 <<장>>은 간도땅에 흘러들어온 가지각색 인간들의 고달픈 삶을 보여준 작품이다. 한쪽 다리가 없는 거지는 방정맞게도 파산 직전에 있는 허름한 난전 앞에서 두시간 동안이나 장타령을 부르다가

가게 주인에게 험하게 구타당하는데 이 사건을 각기 다른
립장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횡설수설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소설을 꾸미고있다. 말하자면 극적인 구성법을 도입한 작품이다.
구경하던 사람의 말, 거지의 말, 노친의 말, 영감의 말을 차례로
들으면 인물관계가 밝혀지고 사건의 시말이 분명해진다.
말하자면 소설은 극적인 구성을 취함으로써 현장감과 친근감
그리고 작중인물의 감정을 한결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소설은 간도에 이주해 살고있는 가지각색 인간들의 어려운 삶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간도가 살기 좋다는 말을 믿고
간도로 와 팔도구금광에서 돌을 저 나르다가 다리 하나를 잃고
벌어먹으며 떠돌아다니는 거지, 가게를 차렸다고는 하나
늘그막에 겨우 낳은 아들 하나도 공부시키지 못하고 험하게
부려먹으면서도 돈 5 전을 훔쳐 호떡을 사 먹었다는 리유로
외동아들의 머리를 피가 나게 때린 령감을 원망하는 로친의
하소연, 장사는 잘 되지 않고 공연히 안해와 아들만을
고생시키고있는 죄책감으로 하여 울적한 심사에 빠져있던중
거지에게 놀림을 당하자 분김에 거지를 구타하기에 이르렀다는
령감의 이야기 등을 통해 지상의 천당이라는 간도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지고 간도의 비참한 현실은 적라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이 작품은 있는자와 없는자의 대립이 아니라 동일한
계층에 속해 있는 불쌍한 인간들의 우연적인 충돌을 다루었고
기껏해야 인간애의 주제를 설교한데 그치고있다. 말하자면
간도의 비참한 현실과 운명이 조성될수 있는 외부적환경을
짚아주지 못했고 사회의 기본적인 인간관계- 계급적 혹은
민족적인 대립구도속에서 인물의 운명선을 끌고나가지 못했다.

<<북향>>지에 실린 소설은 신변잡사적인 제재, 일화적인
슈제트구성 및 희극적인 인간성격의 창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데 그중 비교적 재치있게 씌여진 작품은 안수길의
단편 "함지장이영감"이다. 이 작품은 1935년 안수길이
결혼하고 고향인 함흥에 들렀을 때의 체험을 5월 9일에
작품화한 것으로 보인다. 작품의 말미에 <<於故郷 5. 9>>라고
적어놓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은 로신의 <<아큐정전>>을

방불케 하는데 <<아큐정전>>은 아큐의 가지가지 희극적인 소행으로 엮어진 중편소설이라면 <<함지장이영감>>은 주인공의 어처구니없는 짝사랑과 그 실련의 충격을 다룬 단편소설이다. 3년전에 상처한 함지장이령감은 어린 오누이를 기르느라 무진 고생을 한다. 그래서 후처를 얻으려 하고 장국밥집 여자를 넘보고 다닌다. 그는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격으로 장국밥집 여자가 자기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선을 해달라고 성화를 부리던중 <<나>>를 찾아 사정한다. 그는 자기의 불쌍한 아들놈과 딸자식을 데리고 와 인사시키기도 하는데 어느 날 국밥 먹으러 온 술꾼이 그 여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도 잡는 광경을 보고는 <<이걸 어찌나, 이걸 어찌나!>> 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런 일이 있던 뒤의 어느 날 밤 밖에서 난데없이 <<도적놈이야!>>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잇달아 함지장이 영감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와 숨겨 달라고 한다. 조금 후에 바로 그 장국밥집 여자가 <<이렇게 종노릇을 하니까 사람을 허수히 알고...>> 하면서 강도를 잡으려는듯이 <<나>>의 집 있는 쪽으로 달려온다. 참으로 함지쟁이 영감의 순박하면서도 엉큼한 성격, 그의 우스꽝스러운 일거일동이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잘 묘사되고있는것만큼 <<북향>>지의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수작(秀作)이라 할수 있다.

보다싶이 안수길은 1935년을 좌우로 문단에 등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소설들은 만주의 각양각색의 인간들을 그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이민사회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있다. 하기에 이상야릇한 독립투사, 길 다르고 속 다른 바람둥이 사내, 함지장이 령감과 같이 병들고 찌든 성격의 소유자들이 주요한 인물군상을 이루고있으며 그들의 이야기들을 반전(反轉)과 해학에 의한 콩트적인 재기로 보여주고있는바 작가의식은 대체로 <<완세불공(玩世不恭)>>의 처세철학에 다분히 잠겨있다. 하지만 안수길의 습작기 소설들을 통해서도 도회지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 이민사회의 험악한 현실을 볼수 있고 빈궁과 실의, 억압과 착취에 허덕이는

이주민들의 다양한 삶을 엿볼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문학적인 실험을 통해 이민사, 개척사를 다룬 대가 굵은 작품들이 싹 트고 자라나게 된다.

3

안수길의 본격적인 문학창작은 만선일보 기자시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시기의 소설들은 그의 소설집 <<북원>>에 수록되어 있다. 소설집 <<북원>>은 일제의 단말마적 전시동원체제가 지속되던 1943년, 간도 연길의 예문당에서 간행되었다. 안수길의 중, 단편소설 12편을 수록한 이 창작집은 재만조선인작품집 <<싹트는 대지>>(1941), <<만주시인집>>(1942), <<재만조선인시인집>>(1942)의 뒤를 이어 간행되었는데 이 시기 개인창작집으로는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북원>>에 수록된 소설은 도합 12편인데 내용적인 면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말하자면 이주민들의 수난사와 개척사를 반영한 <<새벽>>(1935), <<벼>>(1940), <<원각촌>>(1940), <<토성>>(1941), <<새마을>>(1941), <<목축기>>(1942) 등 6편과 기타 생활제재를 다룬 <<함지장이영감>>(1935), <<부엌녀>>(1935), <<사호실>>(1939), <<차중에서>>(1939), <<한여름밤>>(1940), <<바람>>(1942) 등 6편이다.

<<북원>>은 발간되자마자 만주 및 국내 문단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친일문학의 총아이기도 했던 정인택(鄭仁澤)은 연길에서 자기 작품집을 낼수 없겠느냐고 문의해 왔고 청진의 <<맥>> 동인들은 <<만선일보>>에 작품을 다투어 투고해 왔다. 이 작품집은 또한 다종다양한 조선인 생활의 시대적변천과 력사적사명 등을 남김없이 취재한 창작집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재만조선인 개척의 문헌적가치도 많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여기서는 주로 이주민의 수난사와 개척사를 소설들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소설 <<새벽>>은 한 소년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 일인칭소설인데 그 이야기줄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작인으로서 남에게 진 빚을 하루 빨리 갚기 위해 겨울에 소금 밀수를 하다가 잡힌 아버지는 토지관리인 박치만(얼되놈이라고도 불리는 악질적인 조선인)의 <<도움>>을 받고 벌금만 물고 풀려나온다. 기실 이는 벌금 물 돈을 빌려줌으로써 아버지의 빚을 가중시켜 <<나>>의 누이 복동예를 한층 더 옴아매려는 박치만의 흉계였다는 것이 나중에야 밝혀진다. 하여 복동예는 사랑하는 총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빚을 기한 내에 갚지 못했으므로 박치만에게 시집갈수밖에 없게 된다. 사랑하는 총각과 달아나려는 복동예의 노력도, 중국인 지주 호씨에게 한 아버지의 호소도 허사가 되는데 혼인날 아침 복동예는 낮으로 목을 찢러 자결하고 그 장면을 목도한 어머니는 실성하며 온 가정은 비탄속에 빠진다. 따라서 전반 작품은 참담한 색조로 일관되어 있다. 보다싶이 <<새벽>>은 두만강상류의 산골에 이주한 한 가족이 어떤 과정을 거쳐 비극적인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는가를 보여준 소설이다. 이 소설은 조선사람이지만 얼되놈이 되어 동족을 못살게 구는 박치만과 소금 밀매라도 해서 살아가겠다는 창북이네 집과의 갈등, 지팡살이하는 이주민의 딸이지만 결코 순결을 더럽힐수 없다고 생각하는 복동예의 애정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주로 소금밀매사건, 장작림군벌의 횡포, 복동예와 삼손의 도주 실패, 복동예의 자결 등 네개의 사건이 차례로 이어지고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장면, 사건들을 통하여 이주민들에게 가해지는 여러가지 부당한 현실적 위협요인들의 실체와, 무방비상태에서 피해를 당할수밖에 없었던 그네들의 불행을 묘사한 이 작품은 특히 외부적인 횡포로 인한 네 식구의 극한적인 고통을 집중적으로 그렸다. 여기서 외부적 횡포라고 말하는것은 얼되놈 박치만의 간교하고 악랄한 행동을 포함한 주변의 무법적인 현실이다. 동족을 착취하여 개인적인 안일을 누리는 박치만은 스스로 조선인임을 숨기려 하면서 관청을 등에 업고 주민들을 위협하고 부녀자들을 룡락하는 반민족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박치만의 패덕한 행위를

더욱 조장시켜주는것은 무질서한 사회환경이다. 돈에 매수당하는 집사대(緝私隊)나 장작림군벌의 사용병(私傭兵)의 략탈 등이 그것이다.

결국 이 소설은 누나의 끔직한 자살과 그 충격을 받고 미쳐버린 어머니의 날카로운 웃음소리로 끝나고있다. 빛에 쪼들린 생활과 위협을 무릅쓴 소금밀수, 누나를 빼앗아가려는 박치만의 동물적인 욕망과 아버지, 어머니의 말다툼과 한숨으로 암울하게 전개되던 내용이 결국 죽음과 정신착란이라는 삶의 극단적인 파탄 양상으로 귀결되는것이다. 이것은 최소한의 생활조건마저 주어져있지 않고 오히려 살고자 하는 의욕까지 빼앗아가는 가혹한 현실과 그러한 암울한 현실속에서 비참히 죽어가는 나라없는 백성의 비극을 한층 강한 의미로 부각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찍 김오성은 <<이 작품이야말로 개척민의 생활사의 한토막이라 할수 있다>>고 하였고 조동일은 <<최서해에서 강경애로 이어지는, 항변에 찬 빈곤문학을 어느 정도 따랐다>>고 평가했다.

안수길이 소설 <<새벽>>에 이어 개척이민사를 보다 깊이 다룬것은 1941 년에 쓴 <<벼>>와 <<원각촌>>이다. 중편소설 <<벼>>는 <<새벽>>과 마찬가지로 위만주국 건국 이전인 1930 년도를 작품의 배경으로 깔고있다. 역시 <<만주>> 조선인 개척이민의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벼>>는 전장과 후장으로 나뉘어져있고 이 작품의 슈제트구성에서 가장 큰 골격을 이루고있는것은 벼농사와 학교를 세우는 일이다. 지난 세기 중엽으로부터 시작된 조선민족의 이민사는 벼농사를 떠날수 없었으니 만주로의 조선인 개척사도 례외가 될수 없었다. 사실 벼농사를 모든 농사중에 으뜸으로 치고 벼농사로서 생존의 터밭을 삼고자 하는 지향성은 우리 조선민족만이 가진 특수성이다. 이 점에서 조선민족은 적어도 만주에 살던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리고 벼농사는 물을 떠날수 없는것만큼 관개사업이 첫 과제이요, 관개사업은 집단적로동을 요청하고 집단적로동은

필연코 조선인공동체를 만들어내게 된다. 만주별관에 벼농사를 하기 위해 관개사업을 벌리는 일은 이처럼 조선민족 고유의 혈연적공동체에 로동공동체를 더한 완벽한 결합체를 만들어내지만 만주라는 이 특수한 지역에는 이를 거부하는 세력도 만만치가 않다. 그 대립 세력들은 땅주인, 원주민 및 중국관헌이다.

첫째로 <<새벽>>과는 달리 <<벼>>에는 조선인개척민들과 지주와의 대립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전개되지 않고있다. 중국인 지주 방치원은 조선인 둔장 홍덕호와 개인적친분을 갖고있을뿐만 아니라 조선인개척민들에게 호감을 갖고있다. 그는 조선인개척민들의 수전개간을 후한 조건으로 승낙하는데 그것은 <<조선에 있을 때 입쌀밥에 맛들인 관계도 있거니와 그것이 만주에서도 한전(旱田)보다 리윤이 훨씬 많다는것을 안 까닭>>이었다. 말하자면 일부 개명한 지주의 합리적인 사고의 결과는 오히려 조선인이민의 만주 진출과 수전개발을 묵과 내지는 권장하기에 이른것이다. 하지만 수전개발은 한전농사를 위협하고 자기들의 삶의 뿌리를 뒤흔들어놓는것이라고 오해한 원주민들의 반발은 무서운것이였다. 원주민과의 싸움은 마침내 살인사건으로 번진다. 조선인개척민의 아들 박익수가 원주민들에게 처참하게 맞아 죽었던것이다. 익수의 희생을 치르고서야 개척민들은 매봉둔에 첫 광이를 내릴수가 있었다. 이처럼 소설은 한전농사와 수전농사, 이 두가지 부동한 농경문화의 갈등을 보여주면서 개척이민사의 첫 페이지를 원색으로 보여주었다.

둘째로 조선인개척민과 중국관헌의 대립이다. 조선인의 이민에 대한 중국관헌의 태도 변화를 1) 쇄국시대, 2) 묵허시대, 3) 환영시대, 4) 탄압시대, 5) 일제에 의한 정책이민시대로 구분할수 있다면 소설 <<벼>>는 바로 제 4 단계의 상황을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고있다.

기실 력대의 현장은 매봉둔 촌민들에게 호의적이였다. 하지만 막 부임되어 온 소현장(邵縣長)은 중국관리로는 본분을 다하는

인물이요, 철저한 배일(排日)사상의 소유자이다. 문제는 그의 그릇된 조선인관에 있었다. 소현장은 먼저 매봉둔 촌민들에게 학교건설을 중단하라고 명령한다. 사실 매봉둔 조선인들은 벼농사를 짓고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높아지자 아이들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조선 국내에서 교사노릇을 하는 박찬수를 불러들여 학교를 짓게 한다. 일본인 도매상 나까모도가 자재를 대주고 온 마을이 합심해서 학교를 지을 때 소현장은 홍덕호를 불러 그것을 중단케 하는데 리유는 아주 명백하다. 중국 경내에 조선인학교를 세우지 않겠다는 방침이 섰기때문이다. 소현장의 지론에 따르면 <<조선사람이 많이 모여사는 곳에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사관이 들어온다는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영사관은 물론 일본영사관이다. 그리고 조선인의 법적 지위는 일본인과 같기 때문에 일본영사관에 귀속되는것만큼 철저한 배일사상가인 소현장이 그것을 용납할리 만무했다. 학교를 짓고 마을이 커지면 일본영사관이 들어와 조선인을 자기들의 국민으로 취급하고 명색 좋게 보호하려고 달려드는 꼴을 볼수 없다는것이다. 결국 소현장은 조선인들을 몰아내는 첫 조치로 한창 짓고있는 학교부터 중단시켰던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현장은 조선인에 대해 지나친 편견을 가지고있었다. <<조선사람은 천성이 간사하여 리익을 위하여 필요한 편에 잘 들어붙으나 그것이 불리하면 배은망덕하고 은혜 베푼 사람에 침 뱉기가 일수라는 것이다.>>

소현장의 명령과 원주민의 분노로 말미암아 조선인들이 애를 써서 세운 <<운봉학교>>는 불타버리고 이에 항의하는 조선인을 진압하기 위해 마침내 육군 편의대(便衣隊)가 출동하게 된다. 격분한 매봉둔 조선인들이 나까모도를 통해 일본 령사를 불러오는 한편 원주민들의 마을로 짓쳐들어가다가 방쪽에 이르러 편의대와 맞딴다. 촌민들은 일제히 논밭에 엎드린다. 벼의 싱싱한 감축이 온 몸에 포근히 느껴졌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게 되어있다.

이처럼 소설은 조선인개척민들의 고난의 력사와 끈질긴 정착의지를 선이 굵은 이야기로 형상화함으로써 재만조선인문학의 주류— 조선인개척민의 수난사와 정착사의 형상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은 <<만주>>에서의 다양한 세력들간의 모순과 갈등의 해결책을 조선인과 일본인의 화합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위만주국 건국후의 생활을 제재로 취급한 그의 소설에서는 그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다음으로 <<벼>>에는 <<새벽>>에서와는 달리 <<매개적인물>>이 등장한다.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매봉둔에 들어와 학교를 짓고 마을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 주는 찬수가 바로 <<매개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매개적인 인물>>은 신경향파문학을 거쳐 카프문학에 와서 등장하는데 아무튼 안수길의 소설문학에서 <<매개적인 인물>>은 작가의 사상과 현실대응자세를 대변하는 인물로 되어 <<벼>>의 찬수로부터 시작하여 <<목축기>>의 찬호를 거쳐 <<북향보>>의 친구로 이어지고있다.

만약 소설 <<벼>>가 조선인의 민족단위의 생존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제의 강점을 띠고있다면 소설 <<원각촌>>은 한 개인의 강렬한 개성을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보이지 못한 독특하고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있다.

단편 <<원각촌>>은 <<북원>>에 실리기 앞서 조선 국내의 잡지 "국민문학" 1942년 2월 제1권 제2호에 실린바 있는데 발표되자마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격찬을 받았다. 유진오씨는 <<큰 물에서 큰 고기가 산다>>고 격찬했다. 그럼 <<원각촌>>은 어떤 소설인가? 이 소설은 조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북만 겨울의 풍경을 펼쳐보이면서 음울한 짐승같은 사나이를 등장시키고있다. 말하자면 깎아지른 벼랑과 좁은 산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웬 사나이가 원각촌이라는 마을로 찾아가고있었다. 험상궂게 생긴 얼굴에 현결찬 체구, 그가 이끄는 말잔등에는 솔과 보통이와 함께 누더기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쓴 그의 안해가 짐짝처럼 앉아있었다. 그리고

말궁둥이에는 길이 5 자는 푼히 되는 쾌마우재(나무 썬는 긴 톱)가 실려있다. 이 산판 저 산판 떠돌이생활을 하고있는 톱세기인 역쇠 리원보(李元甫)와 그의 안해 금녀이다. 중국인 지팡의 불모로 있던 금녀를 돈 백원으로 사서 안해로 삼은것이다. 이 역쇠라는 사내는 경상북도 출신이라고는 하나 그의 래력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만주에 흘러 들어와 겨울이면 거친 산판을 떠돌아 다니며 벌목을 하고 여름이면 지팡에 내려오곤 하였다. 그런데 사나이에게는 내내 한가지 근심이 가서지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못 사내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안해를 독차지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고독한 역쇠의 생존 본능과 금녀에 대한 독점욕을 건드린것은 원각촌의 악종 한익상이다. 그는 중국적에 입적했고 만주말에 능했으며 관리나 군인들에게 아편을 레물로 바침으로써 중국측의 비호를 받아 조선인 개척민을 갖은 방법으로 괴롭히는 악종이였다. <<얼똥놈>>인 한익상을 두고 <<저놈 잡아가는 귀신은 없나>> 하고 마을 사람들은 치를 떤다. 하지만 역쇠는 한익상의 내속을 모르고 서로 어울린다. 안해를 마을 사람들과 떼여놓자는 목적에서였다. 하지만 한익상의 속셈은 역쇠를 리용하고 그의 젊은 안해를 빼앗자는데 있었다. 마침내 안해를 겁탈하는 장면을 목격한 역쇠는 한익상을 무지하게 도끼로 쳐죽인다.

역쇠에게는 그 어떤 집단적인 리익과 계급적인 대립의식보다도 자기의 생존욕구, 자기 안해에 대한 점유욕이 우위를 점하고있었던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윤식은 주인공 역쇠를 <<한마리의 늑대>>로 규정하면서 이 소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있다. <<간도에 들어온 한마리 늑대를 그린 작품 '원각촌'은 다음 두가지 점에서 '새벽'이라든가 '벼' 계통의 개척이민사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첫째 조선 민족단위나 가족단위의 생존방식이 아니라 순전히 한 개인의 생존권을 다루었다는 점. 사나이 역쇠는 가족도 족보도 고향도 없다. 이원보라 불리는 그는 혼자이고 정착을 싫어하였다. 산판을 돌아다니며 나무 자르는 일을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집단의 영웅이 아니라 한마리의 늑대로서의 고독한 영웅상이다. 이것은

작품 '원각촌'이 시정(市政)의 리얼리즘에 맴도는 창백한 지식인의 심리해명에 전전공공하는 국내 문단을 충격한 제일 큰 이유였다. 유진오가 '큰 물에 큰 고기가 산다'는것은 이런 뜻으로 해석된다. 거칠고 외로운 그러나 강인한 개성을 지닌 인물을 이 작품에서 만들어 낸 점이 안수길의 작가적 역량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아내의 부정이 도덕적 문제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점. 아내의 문제는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가장 단순하고 원시적인 '늑대의 관습'이자 '늑대의 본능'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랄감각이 전혀 스며들지 못한다. 개인의 생존권의 최소 단위를 문제삼을 수 있을 따름이고, 가정이라든가 종족단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삶을 짐승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일은, 원시적인 세계에서는 으뜸 자리에 오는 일이다. 먹는 일과 종족번식을 위한 생식작용만이 짐승으로서의 사람의 가장 기본조건이다. 만주 개척이민의 원시적인 유형은 물을것도 없이 이런 인물의 창조를 통해 찾아낼수 있을것이다.>> 이어서 김윤식씨는 이러한 <<원각촌>>은 김동인의 <<붉은산>>과 더불어 하나의 주제군을 이룬다고 보면서 <<'붉은산'에서 삶이 민족내부에서는 악종이고 민족 외부에서는 선종이었다. 이 때문에 한 인물 속에 선악이 함께 있었다. '원각촌'에서의 한익상은 민족의 안에서도 밖에서도 악종이었다. 한편 역쇠는 안으로든 밖으로든 관계없이 선종도 악종도 아닌 한 마리 늑대였을 뿐이다.>> 라고 평가하고있다. 아무튼 역쇠는 개척이민의 특수한 유형의 대표로서 생존을 위한 표박, 독물적인 애정을 위한 고독과 복수로 특징지어지는 이색적인 형상이다.

가족 또는 민족군체의 생존과 개척사를 집요하게 추구하던 안수길이 역쇠와 같은 형상을 창조한것도 기괴하지만 그의 단편 <<바람>> 역시 작가의 방황과 동요를 보여주는 전환기의 작품이다. 럽상섭의 말을 빈다면 "엽기적 흥미"에 젖어있는 작품이다.

동만(東滿)의 관문과 국도를 이어주는 철도 지선(支線)의 또 그 지선, 분기점으로부터 떨어진 한산한 로선, 그 중에서도 하잘것 없는 정거장, 어스름한 장명등이 하나밖에 없는 플레트홈에 밤 열한시 막차를 기다리는 초라한 승객 몇명이 서있다. 그 속에 순이라는 처녀가 섞여있다. 그녀는 서로 눈이 맞은 한마을 총각 정남이와 함께 야반도주를 하기 위해 먼저 나와 기다리고있단다. <<그러나 이 홈에 내리였다가 슬적 함께 다시 그 차에 오르기로 철석같이 약속했던 정남이의 모양이 암만 찾아도 눈에 띄지 않았을 때 순이의 마음은 천길만길의 비탈에 떨어지는듯 했다.>> 기차는 마침내 순이를 남기고 기적을 뿜으며 사라진다.

왜 총각은 기차를 놓쳤던가? 총각은 무서운 만주벌판의 <<바람으로 하여 길을 잘못 든것이였다.>> 김윤식은 <<만주벌판을 불어젖히는 봄철의 바람은 사람의 갈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머리조차 돌게 하여 길을 엇갈리게 하며 또 나아가 사람(처녀)의 마음마저도 변하게 만들어 버리는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매우 밀도있게 그려내었다. 만주 자연의 독특한 힘이 작품의 참주제에까지 나아간 것은 '바람'이 처음이다>> 라고 평가했는데 실은 만주의 자연을 체험한바 없는 한 한국학자의 천진한 상상일 뿐이다.

<<바람>>이야말로 참으로 애매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안수길의 예리한 력사의식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인간비극의 원인을 한낱 자연의 조화에서 찾고있다. <<새벽>>에 나오는 복동예의 비극과는 너무나 상반된다. 순이는 힘 세고 일 자라는 송침지의 아들에게 시집가기 싫어 야반도주를 하고 정남이는 만주벌판에 불어치는 야속한 바람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 순이의 미움을 사고 결국 둘의 애정은 파탄된다. 아무튼 조동일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처럼 안수길은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를 모호하게 처리하던 단계를 지나>> 마침내 일제가 만들어낸 위만주국의 허상 아래에 조선인 개척민들의 리상국을 건설하려고 한다. 그 전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 <<목축기>>이다.

물론 일제의 검열을 의식한 까닭이겠지만 작품집 <<북원>>에 실린 소설을 보면 만주국이전의 이민생활사를 다룬 작품은 력사의 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있으나 일단 만주국 건국 후의 이민생활사를 다룬 작품은 일제를 <<질서의 수호자로 긍정>>하면서 만주국의 시책을 따른 구상을 펴고있다. 안수길 자신의 말을 빈다면 <<어떻게 살아왔느냐>>의 문제는 진실성을 기했으나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문제에서는 옳바른 해답을 주지 못하고있다. <<목축기>>에 앞서 만주국 초기의 생활을 반영한 단편 <<토성>>을 보기로 하자.

<<토성>>(1942)은 <<목축기>>보다 한해 먼저 쓴것인데 발표하지 않고있다가 소설집 <<북원>>에 수록한 작품이다. 소설은 <<9.18>>사변후 패잔병과 호적들의 침탈로 인한 조선인사회의 혼란상을 보여주면서 그러한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자위대를 조직하는 조선인부락을 무대로 삼고있다. 주지하다싶이 집단부락은 광범한 조선인대중과 항일유격대의 련계를 끊고 일제의 통치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것인데 작자는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자. 만주국 건국 후 새로 나온 길림성특과주연행정관사처(간도성의 전신)에서는 비적(장작림부대의 잔당들)의 출몰로 인해 황폐해진 농촌을 재건하기 위해 여러가지 특전을 베푼다. 국유지나 중국인의 땅은 당분간 세금 없이 그대로 부치게 하며 땅임자가 확실한 땅도 소작료를 알맞게 정하고 집짓기에 필요한 돈과 영농 자금을 국고에서 담보없이 내주었다. 또 조선총독부에서는 자작농을 알선해주기도 하였다. 하여 <<9.18 사변>>으로 말미암아 피난을 갔던 많은 농민들이 다시 모여들어 집단부락을 만들고 비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 자위단을 조직하고 토성을 쌓았다.

여기서 주인공 명수와 그의 이복형 학수와 의 갈등이 빚어진다. 자위대 부단장인 명수는 신념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정부에서는 아편농사를 권장하고 아편을 비싼 값에 사들였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은 큰 돈덩이가 되는 아편농사에 집념했고 명수도 아버지와 함께 부지런히 아편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명수의 이복형에 천하 악종인 학수가 있다. 학수는 명수네 집안의 <<살>>이었다. 농사 짓기 싫어 도회지에 들어갔다가 사업에 실패한 학수는 명수가 모아놓은 아편을 몰래 훔쳐가기 위해 마을에 나타난다. 현대 이 마을에는 중국인으로 구성된 항일유격대(이른바 비적)의 습격을 막기 위해 자위단 외에도 만주국(일본국) 토벌대가 주둔하고있었다. 학수가 명수네 이웃 마을 어구에 이르렀을 때 이 마을은 비적의 습격을 받아 불바다가 된다. 하지만 산등성이 저쪽에 있는 명수네 마을은 깊은 잠에 들어있었다. 학수는 저도 모르게 옆에 있는 짚단에 불을 질렀다. 비적에 의해 명수네 마을이 요정나면 그가 앓아가야 할 명수의 아편도 거덜이 나겠기 때문이다. 학수가 놓은 불로 말미암아 명수의 마을은 화를 면할수 있었는데 날이 밝자 학수의 시체가 비적의 시체와 더불어 있었다.

이 작품은 만주국 이전 전기 개척민의 수난사, 개척사를 다룬 작품들과 적어도 두가지 점에서 구별된다. 첫째로 전자에서는 해당 시기의 정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험난한 환경속에서 생존과 정착을 위해 발버둥이를 치는 개척민의 군상을 창조하였다면 후자에서는 만주국의 시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세계와 자아의 대결이 아니라 자아의 분열과 갈등을 다루고있다. 명수는 더 말할것없이 현존 질서의 수호자요, 학수에게서도 세계와의 대립은 볼수 없다. 그의 부정적인성격은 돈에 눈이 어두워 인륜을 저버렸다는데 있을뿐이다. 전반 개척민 군체와 세계와의 대립은 해소되고 다만 현존질서에 적응하려는 자와 그러한 적응을 거부하거나 인간적인 룰리를 저버린 자와의 갈등을 다루고있을뿐이다. 주제의 심각성과 슈제트의 박력이 많이 약화되었다. 둘째로 학수는 "원각사"의 억쇠와 엇비슷한 성격의 인물로서 그 전단계의 소설에서는 볼수 없는 인물이다. 그가 아편을 차지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 명수네 마을을 구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결말은 대관절 무엇을 설명하는가? 당대의

기본적인 모순과 갈등의 문학적 표현을 할수 없게 된 작가의 필연적인 소치(所致)이다. "원각사"에서 역쇠가 한익상을 도끼로 쳐죽임으로써 객관적으로는 촌민들을 위해 악을 제거한 것이나 학수의 돈에 대한 집념이 오히려 객관적으로는 고향마을을 구하는 결과를 보았다는 등등의 애매한 슈제트구성과 럽기적인 흥미의 추구는 안수길 문학이 변질되기 전의 전주곡에 다름 아니다. 통치 리념과 체제로부터의 도피 또는 사회모순에 대한 회피는 순응의 징후이기 때문이다.

만주국 통치리념과 체제에 대한 순응, 그 시책에 따른 구상을 편 작품이 바로 <<목축기>>이다.

<<목축기>>는 만주국 건국후로부터 8년이 되던 해를 시대적배경으로 깔고있는데 사립중학교 농업교원이었던 찬호가 지극히 열심히 근무하던 교직을 그만두고 목축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과 보람을 그린 작품이다. 찬호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리유는 두가지이다. 하나는 학교에 대한 특별한 공로도 없고 간도에 망명해 온 지사들과 같은 웅변가도 아니여서 도무지 구변이 없었기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백오십만 동포의 팔팔을 점령한 농촌은 배운자를 목마르게 기다린다>>는 그의 신념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기때문이었다. 학교가 개편되고 그의 막내 동생이 그 학교에 교두(敎頭)로 파견되어 오자 찬호는 마침내 교직을 그만둔다. 찬호는 역시 학교개편으로 <<자리를 후진에게 맡기고 용퇴(勇退)한>> 박선생과 더불어 적은 자본으로 양계장을 만들었고 목축의 유리함을 눈치챈 용퇴교원들이 하나 둘 끼여들어 주주가 되자 찬호가 그 회사의 전무가 되어 목축 지정현인 와우산기슭에 목장을 차린다. 그들은 목축은 물론 양봉, 양돈, 양계, 목우, 목양...의 전반에 거치기로 하였으나 위선 양돈에 주력하여 그 방면의 전문인부를 불러들인 외에 사료(飼料)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목장소유지에 농민을 입식시켜 감자농사를 짓게 하였다. 충청도의 <<론산종묘장(論山種苗場)에 가서 사온 종돈(種豚)은 잘도 자라는데 밤중에 목축장에 범이 뛰어들어 사양원으로 있는

중국인 로우송(老宋)의 귀를 떼여가는 참변도 생기나 목축업에 대한 신념은 더욱 굳어진다.

하지만 이 작품의 주인공 찬호는 만주국당국의 축산업발전시책에 따라 교사 직을 포기하고 농촌에 내려가 농장을 꾸리고 축산업을 하고있는 젊은이다. 특히 찬수가 룡산종묘장에 가서 종자돼지새끼를 가져오는 장면은 당시 만주국의 축산 및 종자개량 운동을 련상케 한다. 일제는 일찍부터 동북의 광활한 토지를 리용하여 가축사양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먼저 면양과 돼지에 대한 개량을 시도했고 그 뒤엔 젓소, 부림소, 닭 등에 대한 개량 사업도 시도했으나 패전하는 바람에 효과를 보지 못했다. 만주산 재래종 돼지는 적응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한 반면에 체형이 못 나고 산육량(産肉量)이 낮았다. 이러한 재래종에 그것과 털빛이 비슷한 박샤(巴克夏)종을 교배시키면 우량종을 얻을수 있었다. 만철(滿鐵)은 철로연선의 도시들과 그 주변의 농촌에다 먼저 개량종을 보급했다. 강덕 2년(1935) 일본으로부터 30 마리를 수입해 드린 것을 발단으로 400 여마리 수입해들었는데 1940년에는 한번에 100 마리를 수입해드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배경이 깔려있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자진해 농촌에 내려가 묵묵히 일한다. 말하자면 찬호는 당시로서는 시급한 농촌회귀의 신념을 갖고있으며 그 신념을 늘변(訥辯)으로 강조하는 지극히 온건하고 합리적인 실천형의 인물로 볼수 있다. 그가 하는 목축업은 분명 만주국 당국의 시책에 맞아떨어지는것이다. 하지만 만주에 뿌리를 내려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지극히 현실적이며 부조(父祖) 개척민들의 생존의지의 변형이라고 할수 있다. 단편 <<목축기>>의 이러한 이중적인 주제의식은 그의 장편 <<북향보>>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썩트는 대지>>가 출판된 당시, 조선 국내의 평론가 김오성은 안수길의 <<새벽>>을 두고 <<이 작품이야말로 개척민의 생활사의 한 토막이라고 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썩트는 대지'를 읽고 참담한 색조를 만주문학의 성격으로 인상받은 것은 기실 이 작품에서 받은 자극에서인 것이다. 만주개척사의 문학적 탐구를 안씨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 라고 보았다. 또한 유진호는 안수길의 <<원각촌>>과 같은 소설을 두고 <<종래 우리 문학에 부족했던 큰 스케일을 칭찬했고, 이국적인 풍토와 인물에 매력을 느낀다>>고 하면서 <<큰 물에 큰 고기가 산다>>고 비유한바 있다. 또한 김윤식은 <<집단의 영웅이 아니라 한 마리 늑대로서의 고독한 영웅상>>- <<이것은 작품 '원각촌'이 시정(市井)의 리얼리즘에 맴도는 창백한 지식인의 심리 해명에 전전긍긍하는 국내 문단을 충격한 제일 큰 이유였다>>고 지적한바 있다. 소장학자 서옥란은 상술한 관점을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은 몇 개 방면으로부터 안수길의 소설의 예술성을 구체적으로 구명하고있다.

첫째로, 묘사의 현장감과 처참한 색조이다. 소설은 주로 자연환경과 사회환경, 인물과 그 행동을 그리는 문학장르인것만큼 묘사를 기본적인 표현수법으로 하고 있다. 묘사의 생동성은 소설의 형상성을 규정한다. 특히 안수길의 경우, 풍부한 <<만주체험>>과 그의 예민한 관찰력과 뛰어난 묘사력에 의해 그의 작품은 강한 현장감과 참담한 색조를 가지고 조선인 개척민의 생활을 원색으로 보여주는데 성공했다. 말하자면 그의 소설은 차디찬 만주별판, 그 푸릿한 려명속에 곳곳하게 서있는 개척민의 군체를 립체적으로부각하고 있다. 안수길의 <<새벽>>을 보면 만주의 광활한 별판, 특히 동토의 땅- 만주에 특유한 눈덮힌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추운 겨울에 대한 묘사를 통해 공간적인 현장감을 창출하고 조선인 이주민들의 생존 조건과 그들의 처참한 운명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소설 <<새벽>>에서는 네 식구가 추위를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오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아버지는 나를 오줌얼룩이진 요에 싸엿고 어머니는 갓난애기를 이불에 싸엿었다.

누이는 아버지의 큰 저고리를 입고 따라왔다.

나는 어찌도 추운지 옷속에 머리를박고 아버지의등에 꼭 붓당겨있으려니까 아버 지등의 때냄새와 요의 퀴퀴한냄새로 숨이 맥혀 견디지못하겠든 생각이 난다.

추운 겨울 햇볏은 가족이 살길을 찾아 길을 떠나는 모습을 너무나도 핏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오줌얼룩이진 요>>, 특히 너무 추워 아버지의 등에 얼굴을 묻었지만 <<때냄새와 요의 퀴퀴한 냄새>>에 숨이 막힌다고 한다. 독자들의 시각과 후각에 강한 자극을 주는 현장감있는 묘사이다. 말하자면 어린 화자의 시점을 빌어 만주의 추운 겨울날을 묘사하고있는데 쪼들린 가난 때문에 희망을 가득 안고 향한 만주였지만 이 길 역시 또 하나의 수난의 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소설의 다른 한 장면을 보기로 하자. 빛을 갓기 위해 소금밀수를 하던 어느날 집사대가 들이닥친다.

<에이키 나쁜 종간나 어디이 갔다 이제 오너?>

때마침 어디갔다 황겁히뛰여오는 어머니를보자 아버지는 너무나 급하여 말을 더 들으면서 독이 빠친배암처럼 머리를쳐들고 눈을부릅떴다.

어머니는 급할때이면 옆사람을 손도못놀리게하는 아버지의 성질을 뻔히아는모양, 민망해하면서 급히 아버지앞에서 소금자루를 맞들고서 뒷문방을 넘어서려하였다.

방을 넘으려고할 때 쿵- 하고 아버지는 문옆에 놓았던 물동이에 채어 자빠졌다.

그러자 소금자루가 통하고 문지방에 떨어지고 다루목이 푸러지며 썩- 하고 흰소 금이 쏘다져나왔다. 깨어진 동이에서는 이내 물이 철철흘러 아버지의옷을 적시였다.

이때의 아버지의낫은 무어라고 형용했으면 좋을지 도무지 적당한말을 차질수없다. 그 처참하든 얼굴! 절망에 다다른 얼굴!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않고 뒤편으로 되라는 듯이 다리를 빼더버리고 어린 애가 트집부리는것같이 앉엇섰다. ……

아버지는 울상이 되이엇고 어머니의 악쓰는 소리, 나의 우름소리에 집안이 들썩 때 절걱절걱하며 줍사대가 들어왔다.

목숨을 내걸고 사온 소금을 감추다가 그만 쏟아버린 장면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황급한 표정과 행동을 생동하게 묘사함으로써 급박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으며 <<통>>, <<쌈>>, <<철철>>, <<절걱절걱>> 등 어둡고 무거운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의태어로 곧 닥쳐올 불행을 암시하고있다.

둘째로 이 작품은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한결 더 지방적인 색채를 돋구고 있다. 안수길의 경우, 그는 함경도방언에 능숙했고 그의 소설을 통해서는 함경도방언의 체취를 구수하게 느낄수가 있다. 대체로 그의 작중 인물들은 함경도 방언을 그대로 쓰고있는데 이는 당시 조 선인사회의 중심지였던 간도에는 함경도출신의 사람들이 많았던 사정과 관련된다. 아무튼 그의 작품을 읽으면 이주민들이 육질거리리는 룡정의 골목거리나 평강벌의 어느 한 장터에 서있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새벽>>을 보면 창복이네 가족의 고향은 함경도 램. 뿐만 아니라 모든 작중인물들은 모두 함경도사투리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소설 <<새벽>>을 보자.

<내가 미친 간나야, 그냥 명동으루 가겠다는데 눈오는 밤에 산기르 어긔게 가겠는가구 말렸듯이…>

<이 쌍간나야, 그래 그기 정말이란 말이야? 이 암내를 내는 개처럼 응 이 미친간나야. 그래 이런 망신이 어디메 있디. 이런 죽보에 없는일- 서나지래두 용서못하겠 다는데 체예딸간나가 그래 서방지르 댕겨. 아무리 집안이 망해서 되누무 지팡사리로 하기루성이… 지금 동리서 무시기라구 하는지 아니? 애비 날에 똥치르 하구… 그래 그놈 아-르 당장에 떼팽개치지 못하겐. 에이키 종간나, 이런건 쥐게없애야 된당이… 그리구 내가 자결해 죽으문 그망이 양이겠는가…>>

<<쌍간나>>, <<종간나>> 등은 함경도방언에서 여자들을 얹잡아 이르는 말로서 이런 방언을 살려 씌으로써 인물의

신분과 성격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고 간도지역의 인정과 풍토를 원색으로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예리한 갈등에 기초한 극성과 긴장감을 창출해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일제시기 만주라는 곳은 여러 나라나 민족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곳인만큼 그속에서 이중삼중의 착취와 압박을 받고있는 조선인 개척민들이 겪게 되는 갈등의 양상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다. <<새벽>>에서는 갈등의 양상이 <<우리 가족>>과 지주 박치만과의 대립관계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소금밀매사건, 장작림군벌의 횡포, 지팡살이를 하는 집 자식이지만 바박치만의 첩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복동예와 그의 련인 삼손의 도주 및 그 실패, 복동예의 자결, 어머니의 미쳐남 등 일련이 사건을 통해 갈등은 점차 첨예하게 발전하며 또한 그러한 갈등의 바탕우에 벌어지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은 숨막히는 긴장감을 동반하고 있다.

소설 <<벼>>의 경우를 보면 주로 두가지 집단적인 갈등을 설정하고 있다.

A. 벼농사를 둘러싸고- 조선인 개척민 : 원주민

B. 학교건설을 둘러싸고- 조선인 개척민 : 중국관헌

보다싶이 이 두가지 갈등은 민족적이며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A에서는 조선인 청년 익수가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되자 조선인 개척민들은 익수의 시신을 메고 시위를 단행한다. 그들은 익수의 피값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버티고 앓아 벼농사에 성공해야 한다고 비장하게 결의한다. B에서는 학교를 둘러싸고 조선인 개척민들과 중국 관헌인 소현장과의 사이에 모순과 마찰을 다루고 있다. 조선인 개척민들은 학교가 불타 버리자 그것을 원주민들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손에 몽둥이며 돌을 들고 나선다. 힘으로 대결하겠다는 집단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갈등 양상은 전성호가 지적한대로 <<이 시기 다른 어느 곳의 조선어권 소설들과 다른 하나의 특징>>이 아닐수 없다.

셋째로 소설 <<원각촌>>에 소 볼수 있지만 대륙적인 기질의 고독한 영웅상 또는 개척민의 원형을 창조했다. 억쇠는 가족도, 족보도 없는 사람이니 그를 굳이 함경도사람이라고 짚어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의 몸에서는 자고로 원시림으로 뒤덮힌 한랭한 함경도나 두만강 이북에 살고있었던 함경도사람들, 그들의 고독하면서도 이악스럽고 거칠고 야성에 넘치는 이른바 니전구투(泥田狗鬪)의 기질을 엿볼수가 있다. 안수길은 바로 함경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있는 간도의 특이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을 작품의 밑바닥에 깔면서 조선인 이주민의 원형 억쇠의 형상을 창조했다. 바꾸어말한다면 억쇠의 형상에는 거칠고 야성적인 함경도사람(또는 동북인)의 원형적 패턴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수 있다. 작품을 보기로 하자.

입김이 얼어붙어 갓이 셋하얗게 서리낀 검정 털모자를 눈만 내놓고 눌러 쓰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덧저고리를 고름으로 허리에 질끈 동여맨 사나히는 가끔 언손등을 눈에 가져가 속눈썹의 서리를 씨스면서 말곱빼를 이끌고 앞에서 걸었다.

말잔등에는 솟과 보통이를 부담으로 한우에 누덕이 이불을 머리까지 더퍼어쓴 그의 안해가 물건짜같이 앉혀있었다. 말궁둥이 쪽에는 기리 다섯자는 너넉되는 쾌마우재(나무썬는 긴 톱)를 가로 비끄러 매논 것이 휘춘휘춘 간열핀 소리를 내이면서 말의걸음을따라 춤을 추었다.

작품에는 조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만주땅의 겨울풍경을 펼쳐보이면서 한 짐승처럼 음울한 사나이를 등장시키고 있다. 가족도, 족보도 없는 고독한 사나이다. 마을사람들은 <<그런 아 하나쯤 이 동리서 없어서 아무러치두 안소다.>> 라고 할 정도로 아예 억쇠를 외면해 버린다. 억쇠에게는 다만 안해 금녀에 대한 독점욕밖에 없다. 말하자면 억쇠는 조선인 개척민의 특수한 류형으로서 생존을 위한 표박(漂泊), 동물적인 애정을 위한 고독과 복수로 특징지어지는 이색적인 형상이다. 안수길은 이와 같이 거칠고 강인한 개성을 지닌 억쇠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작기의 작가적 력량을 과시했고 <<큰물에 큰 고기가 산다>>는 좋은 평판을 들었다.

안수길은 자기의 풍부한 만주체험과 조선인 개척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력사의식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북향>>시절부터 <<북향보>>까지 시종일관 조선인 개척민들의 생활과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활과 정서를 대변하고 그들의 진로를 모색해 왔다.

특히 안수길의 소설집 <북원>>에 실린 소설들을 보면 대체로 세계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새벽>>, <<벼>>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주초기 조선인 개척민들의 수난사, 개척사, 정착사와 그들의 강한 생존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각촌>>, <<바람>> 등에 와서는 특이한 만주의 자연풍토와 조선인 개척민의 특이한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토성>>, <<목축기>>에 와서는 정착과 안주를 위한 조선인이주민들의 순응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위만주국의 현실과 단절된 공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안수길의 소설은 독특한 예술풍격을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이주초기 개척민들의 수난사와 개척사를 현장감이 넘치게 참담한 색조로 보여주었으며 첨예한 갈등에 기초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극적인 수법으로 긴장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또한 단편 <<원각촌>>에서는 개척이민의 특수한 유형—역사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조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대륙적인 기질, 정서와 미를 보여주었다.

요컨대 안수길은 30년대 중반의 <<북향회>>시절부터 일제가 망할 때까지 재만조선인문학을 선도해 나갔고 작품의 량과 질에 있어서 재만조선인문학의 실적을 대표하고 있으며 특히 조선인의 수난사, 개척사와 정착사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굵은 주제를 시종일관하게 탐구, 형상화해 왔는데 이 시기 문학의 기본 흐름을 보여준 작가이며 재만조선인문단의 기수(旗手)라고 할수 있다.

2002. 1. 9, 연길에서

수신: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제 1 회 세계코리아학대회
조직위원회

E-mail 번호: congress@aks.ac.kr

◇ 제 1 회 세계코리아학대회 논문 발표자의 인적 상황 ◇

발표자 성함: 김 호웅(金虎雄, JIN HU XIONG)

Panel: 문학

논문제목: 《在滿朝鮮人文學의 旗手—安壽吉과 그의
文學世界》

연구분야: 한국현대문학, 중국조선족문학

소속: 중국 연변대학교 조문학부 학부장, 교수, 박사

국제고려학회 아세아분회 문학분과위원장, 연변지회 회장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Email : jhx53@hanmail.net

전화: ① 0082-0433-273-2303 ② 273-3085

Fax: ① 0086-433-273-2402 ② 273-9618

서류 등의 송부주소: 郵便番號 133002

中國吉林省延吉市公園路 105 號

延邊大學 師範學院 朝文系

金虎雄 教授

◇ 발표 논문 요지 ◇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수— 안수길과 그의 문학세계

위만주국시기(1932.3~1945.8)에 중국 동북의 룡정과 신경을 중심으로 염상섭, 안수길, 박팔양, 김조규 등 20 여명의 문인들이 《문화부대》를 형성하고 활발한 움직임 보였다. 이 지역을 여행했거나 방랑한 문인들까지 계산하면 무려 130 여명에 이른다. 이들 <<문화부대>>는 김창걸, 이육 등 이 지역의 향토작가들을 육성했으며 1930년대 초반의 <<북향>>시 시절부터 안수길의 장편 <<북향보>> 연재가 끝나는 1945년까지 민족문학의 명맥을 이어나갔다. 재만조선인문학은 한국현대문학의 대륙으로의 확장이라는데, 특히 암흑기(1940.8~1945.8)의 공백을 메웠다는데 의미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방 후 중국조선족문학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도 의미를 가진다.

이 14년간의 재만조선인문학에서 가장 빛나는 활약상을 보인 문인은 남석 안수길이다. 그는 자기의 풍부한 만주체험과 조선인 개척민들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투철한 역사의식과 현실인식을 가지고 <<북향>>시절부터 <<북향보>>까지 시종일관 조선인 개척민들의 생활과 운명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생활과 정서를 대변하고 그들의 진로를 모색해 왔다.

특히 안수길의 소설집 <북원>>(1943)에 실린 소설들을 보면 대체로 세계 단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새벽>>, <<벼>>와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주초기 조선인 개척민들의 수난사, 개척사, 정착사와 그들의 강한 생존의지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원각촌>>, <<바람>> 등에 와서는 특이한 만주의 자연풍토와 조선인 개척민의 특이한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토성>>, <<목축기>>에 와서는 정착과 안주를 위한 조선인이주민들의 순응적인 삶의 자세를 보여주면서 위만주국의 현실과 단절된 공상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다.

안수길의 소설은 독특한 예술풍격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이주초기 개척민들의 수난사와 개척사를 현장감이 넘치게, 참담한 색조로 보여주었으며 첨예한 갈등에 기초한 <<자아와 세계의 대립>>을 극적인 수법으로 긴장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또한 단편 <<원각촌>>에서는 개척이민의 특수한 유형—억쇠의 형상을 성공적으로 창조함으로써 조선 국내에서는 볼수 없는 대륙적인 기질, 정서와 미를 보여주었다.

안수길과 그의 문학이 새롭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부대>> 계열에 속하는 문인들 중 이 지역에 가장 오래 동안 살았고 <<북향>>지 시절부터 <<만선일보>> 시절까지 시종 재만조선인문단의 중심 멤버로 활약했다. ② 작품의 양과 질에 있어서 단연 첫 자리를 차지하며 <<북원>>이라는 개인소설집을 펴낸 유일무이한 문인이다. ③ 만주조선인의 개척사, 정착사 및 그들의 운명과 진로를 집요하게 추구하고 형상화한 작가로서, 한국 현대문학의

대륙적인 기질, 정서와 미를 창출한 작가로서 그의 소설은
재만조선인문학의 기본 테마와 직결되어 있으며
재만조선인문학의 주요한 흐름과 단계를 대변하고 있다.
한마디로 그는 재만조선인문학의 기수이다. ④ 1959년
대하소설 <<북간도>>를 발표하지만 그의 전반 문학은 중국의
동북 대륙과 숙명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대륙문학과
한반도문학의 혈연적인 관계 및 그 양자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문학의 지평을 약속해준다.

2002. 2. 5